

**OECD 비유럽 회원국가
PPP 회의 참가 결과 보고**

2009. 5

**경제통계국
물가통계과**

목 차

| | |
|---|----|
| I. 회의 개요 | 1 |
| II. 회의 일정 | 1 |
| III. 회의 주요 내용 | |
| 1. 환영인사 | 1 |
| 2. OECD PPP 프로그램 소개 | 2 |
| 3. 교육 PPP의 새로운 접근법 | 5 |
| 4. 2008라운드 조사결과 토의 | 6 |
| 5. 2008라운드 조사완결 관련 토의 | 11 |
| 6. 2011라운드 조사준비 | 11 |
| 7. 기타 안건 | 11 |
| IV. 회의 참가소감 | 12 |
| | |
| □ 불임자료 | |
| 1. 회의 참석자 명단 | 13 |
| 2. 2011라운드 시간계획표 | 14 |
| | |
| □ 별첨자료 | |
| ○ 문서 1 : PPP와 활용(Purchasing Power Parities and their uses) | |
| ○ 문서 2 : 교육 PPP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(A new approach to education PPPs in the Eurostat/OECD exercise) | |
| ○ 문서 3 : 식료품 및 음료, 담배(Food, drinks and tobacco: 2006- I) | |
| ○ 문서 4 : 개인용품(Personal appearance: 2006- II) | |
| ○ 문서 5 : 가정용품(House and garden: 2007- I) | |
| ○ 문서 6 : 교통 · 외식 · 숙박(Services: 2007- II) | |

I. 회의 개요

- 회의명칭 : OECD 비유럽 회원국가 구매력평가(PPP) 회의
- 회의기간 : 2009. 4. 27. ~ 4. 29. (3일간)
- 장 소 : 상무성 노동통계국 (BLS, 미국 워싱턴 D.C 소재)
- 참 가 자 : OECD 및 Eurostat, 비유럽국가 국민계정 및 PPP담당자
- ※ 비유럽국가 : 한국, 일본,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이스라엘, 멕시코, 러시아
- ※ 한국은 물가통계과 이은정 참가, 한국은행 담당자 불참

II. 회의일정

| 구 분 | | 주 요 내 용 | 비 고 |
|-----|---------|---|--|
| 1일차 | 4.27(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영식(BLS와 OECD) · OECD PPP 프로그램 소개 · 교육PPP의 새로운 접근법 설명 | Paul Schreyer (OECD 과장) |
| 2일차 | 4.28(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별 PPP 가격조사 사례발표 · 기 수행된 2008라운드 조사결과 토의 · 2008라운드 조사완결을 위한 토의 | Francette Koechlin (OECD 담당자) 및 각국 담당자 |
| 3일차 | 4.29(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11라운드 조사 준비 · 다음 회의 일정 및 장소 토의 | Paul Schreyer (OECD 과장) |

III. 회의 주요내용

1. 환영인사

- OECD 담당자(Paul Schreyer, OECD 과장)이 일정별 안건에 대해 간단한 소개
- Schreyer 과장의 제안에 따라 각국 회의참석자의 간단한 자기소개 실시

2. OECD PPP 프로그램 소개

1) PPP 작성 배경

- GDP는 각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지표
- GDP는 각 국가별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
 - * 환율은 물가수준 이외에 국제수지, 금리, 정치적 안정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단기적인 변동이 심하고 물가수준 차이를 반영하게 되므로 물가수준 차이를 제거하여 구매력을 동일하게 하는 PPP 작성 필요
- OECD 회원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GDP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에 PPP 작성시작

2) GDP의 국제비교를 위한 PPP

- GDP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세 가지 조건 충족 필요

- ① GDP의 정의가 동일
- ② GDP가 표시되는 통화단위가 동일
- ③ GDP의 가치가 평가되는 물가수준이 동일

- 각 국가가 93 SNA를 따르므로 ①번 조건 충족
 - 각 국가의 통화는 환율에 의해 동일통화단위(예: 美달러화)로 표현되므로 ②번 조건 충족
 - ③번 조건의 경우 PPP를 통해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같게 함으로써 충족시킴
- PPP는 통화 환산 및 물가 디플레이터 역할
 - GDP를 동일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 중 동일 물가수준으로 GDP를 재산정함으로써 각 국의 물가수준 차이를 제거
 - PPP는 환율만큼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PPP 환산 자료는 시계열에 있어 보다 안정적임

3) Eurostat-OECD PPP 프로그램

□ PPP 프로그램 개요

- Eurostat와 OECD의 합동 프로그램
 - 80년대에 시작
 - 이전라운드 :1980, 1985, 1990, 1993, 1996, 1999, 2002, 2005라운드
 - 현재 2008라운드 마무리 단계
- * 우리나라는 1996.12월 OECD 가입 후인 1999라운드부터 참여

□ PPP 가격 자료요건

- 상품과 서비스의 동일 바구니 내에서 선정된 품목에 대한 국가 평균 가격이어야 함
 - 바구니 내 약 3,000개의 상품과 서비스 존재
 - 품목은 비교가능하고 대표성이 있어야 함
- 상품과 서비스의 바구니는 GDP를 포함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표본이어야 함

□ PPP 가격자료 수집

- 가격조사 주기 : 3년 주기로 실시
 - 소비자 상품과 서비스 : 6개 조사
 - 자본재 상품 : 2개 조사
 - 집세 : 1개 조사
 - 피고용자 보수 : 1개 조사
- 기본항목(basic heading)에 대한 품목 리스트 존재
 - 기본항목 수준에서 지출값이 보여지고, 품목이 선정되고, 가격이 수정되고, PPP가 작성됨
- 제공할 품목의 성격
 - 국가별 비교가능성
 - GDP 최종지출에서의 대표성
 - 가격의 일치성(GDP 최종지출 값 = 가격*물량)

□ PPP 가격조사의 최근 이슈

- 비유럽국가의 시장유형이 유럽국가와 달라 비교가능성에 문제점 발생
 - 한국산 자동차, 미국에서의 대형 자동차
 - 다양한 모델의 TV
- 일부 품목에서 국가별로 비교하기 어려움 발생
 - 항공요금 등

4) PPP의 활용

- OECD내 각 국가경제 규모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PPP로 환산한 GDP를 활용
 - 국가간 작은 차이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어서는 안됨
 - * PPP는 정확한 측정치라기 보다는 통계적 산출물이므로 그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통계오차의 범위 안에 있어 국가간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려움
- 비교 물가 수준(CPL, Comparative price levels) 작성
 - CPL은 환율에 따라 변함($CPL = PPP / \text{환율}$)
 - CPL과 1인당 GDP사이에 양의 상관관계 존재
- 국가간 생계비 지수(Cost of living index)에 활용
 - 가구 최종소비 지출의 비교 물가 수준
 - 거주민의 평균 소비패턴에 관함
- ※ PPP 활용에 있어서 주의점
 - 통화에 대해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지표로는 부적절
 - 각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도구로는 부적절
 - 산업별 생산력 비교를 위한 추정에는 부적절
 - 국가별 수출 또는 수입의 물량 추정으로는 부적절

3. 교육 PPP의 새로운 접근법

□ 배 경

- 투입비용(input) 접근법에 대한 불만족
 - 이론적인 취약점,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물 등으로 인함
 - * 그동안 비시장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생산에 투입된 각종 비용을 근거로 평가하여 왔음
- 국민계정에서 점진적으로 수행되는 산출물(output) 접근법
 - 교육산출물은 '각 교육 분야에 대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여 조정된 학생들에 의해 받는 교육의 양을 의미
 - * 산출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한 가격(기초가격)으로서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계없이 생산시점 기준으로 평가되며, 93 SNA에서는 총산출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
- 신뢰할 수 있는 물량지표에 대한 수요자 욕구 증대
- 비시장서비스의 처리방법에 대한 Eurostat-OECD TF팀 구성
 - 교육 PPP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제안

□ 신 접근법에 대한 성격

- 물량의 직접적인 추정 가능
 - 물량은 전체 인구 대비 학생수로 정의됨
- PPP는 간접적으로 획득
 - 교육에 대한 지출이 물량지표로부터 얻어짐

□ 자료요구

- UNESCO, OECD, Eurostat DB의 교육자료
- 국민계정의 지출자료
- 보조지표 : 인구수, 환율
- ※ 각 국가의 추가적인 보고자료는 없음

4. 2008라운드 조사결과 토의

1) 2006 -I 조사 : 식료품 조사

- 식료품의 국가별 가구 소비지출 비중(2005년)
 - OECD는 17.9%이며, 미국이 8.9%로 가장 낮고 멕시코가 27.2%로 가장 높음
 -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17.7%로 OECD와 비슷한 수준임

- 기본항목(Basic Headings)
 - 담배, 음료수, 빵, 맥주 등 38개 기본항목

- 가격조사 품목수
 - 비유럽국가 : 413개, 유럽국가 : 493개
 - 가격조사 품목수와 대표품목수의 비중은 국가마다 상이함
 - (호 주) 조사 품목수 : 357개, 대표 품목수 : 349개
 - (뉴질랜드) 조사 품목수 : 298개, 대표 품목수 : 140개
 - (일 본) 조사 품목수 : 210개, 대표 품목수 : 206개
 - (한 국) 조사 품목수 : 190개, 대표 품목수 : 128개
 - (캐 나 다) 조사 품목수 : 229개, 대표 품목수 : 217개
 - (미 국) 조사 품목수 : 214개, 대표 품목수 : 214개

- 2005라운드와의 비교물가수준(CPL) 비교
 -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라운드 사이에 큰 차이 없음
 - 다만, 일본의 경우 환율의 영향으로 2008라운드에 감소
 - 세부지출별로 2005라운드와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은 다시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

○ 검토의견

- 대표품목 처리에 관한 사항

- 일본의 경우 치즈 가격이 매우 비싸고 대부분의 규격이 대표품목인 것에 대해서는 검토 요망
- 한국의 경우 와인의 지출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 지나치게 많은 규격을 대표품목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검토 요망
- 또한 한국의 쇠고기 품목의 경우 대부분의 규격의 가격이 높게 보고되었는데 실제로 비싼 것인지 아니면 OECD 요청 규격이 한국 내 시장에서 대표성이 없는 것인지 검토 요망
- * 대표 품목은 기본항목 내에서 지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격이 낮은 것에 대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함
- * 또한, 가격이 이상치라고 생각되면 가격을 보고하는 것보다 가격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게 OECD측 의견

- 일년 평균가격을 산출하는 방법

-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술평균을 하고 있으나 기하평균을 쓰는 방법 등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

- 계절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방법

- 식료품의 계절품목의 경우 조사기간에 조사품목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절품목에 대한 고려를 요청
- CPI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, PPP를 위한 특별조사의 경우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김

2) 2006-II 조사 : 개인용품 조사

- 개인용품의 국가별 가구 소비지출 비중(2005년)
 - OECD는 8.0%이며, 한국이 7.3%로 가장 높고, 멕시코가 5.7%로 가장 낮음
 - 일본은 6.3%, 미국은 6.4%, 호주는 6.6%, 캐나다는 6.8%, 뉴질랜드는 6.9%, 이스라엘 7.0%로 거의 모든 국가가 비슷한 수준임

- 기본항목(Basic Headings)
 - 여성의류, 기타 섬유류, 남성의류 등 13개 기본항목

- 가격조사 품목수
 - 비유럽국가 : 347개, 유럽국가 : 475개
 - 의류와 신발의 브랜드별 품목 선정이 중요함

- 2005라운드와의 CPL 비교
 -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라운드 사이에 큰 차이 없음
 - 다만, 호주의 경우 2005라운드에 비해 증가
 - (호 주) 2005라운드 : 87, 2007년 : 115
 - (뉴질랜드) 2005라운드 : 104, 2007년 : 93
 - (일 본) 2005라운드 : 125, 2007년 : 121
 - (한 국) 2005라운드 : 91, 2007년 : 101
 - (캐 나 다) 2005라운드 : 102, 2007년 : 111
 - (미 국) 2005라운드 : 82, 2007년 : 76

- 검토의견
 - 기본항목 내 품목별로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변이 계수가 큰 규격에 대해 재검토요망

3) 2007- I 조사 : 가정용품 조사

- 가정용품의 국가별 가구 소비지출 비중(2005년)
 - OECD는 7.5%이며, 뉴질랜드가 9.5%로 가장 높고 한국이 5.4%로 가장 낮음
 - 멕시코, 이스라엘이 각각 5.6%, 5.9%이며, 미국은 6.5%, 일본, 캐나다는 7.6%, 7.8%, 호주는 8.9%, 뉴질랜드는 9.5%임

- 기본항목(Basic Headings)
 - 비내구성 가정용품, 신문 및 간행물 등 18개 기본항목

- 가격조사 품목수
 - 비유럽국가 : 401개, 유럽국가 : 526개
 - 국가별 대표품목수가 상당히 상이함

- 검토의견
 - 인터넷 조사 시 배달료 포함여부
 - 미국, 캐나다의 경우 운반비는 가격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운반비가 없어 가격에서 제외
 - 각 국가별 인터넷 조사의 비중은 5% 정도로 작음 따라서, 가격에서 제외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
 - 특정 상품에 대해서 규격의 유연성 확보
 - 일본의 캠코더 품목의 경우, 규격이 일본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 내에서 해당 규격을 찾을 수 없어 15개 규격 중 2개의 가격만 보고
 - 특정 품목의 경우 유연성 있게 규격을 주도록 검토

4) 2007-II 조사 : 교통 · 외식 · 숙박부문 조사

- 국가별 가구 소비지출 비중(2005년, %)
 - 교통부문
 - 한국(5.1), 일본(5.6), 이스라엘(6.7), 멕시코(7.8), 호주(8.0), 뉴질랜드(8.0), OECD(8.5), 미국(8.6), 캐나다(11.0)
 - 외식 · 숙박부문
 - 이스라엘(5.2), 미국(6.2), 캐나다(7.0), 멕시코(7.2), 한국(7.5), 일본(7.7), 뉴질랜드(7.8), 호주(8.0), OECD(8.1)
- 기본항목(Basic Headings)
 - 식당서비스, 1699cc이하 자동차, 숙박서비스 등 13개 기본항목
- 가격조사 품목수(전체 품목 : 333개)
 - 비유럽국가 : 333개, 유럽국가 : 431개
- CPL 등이 차이 나는 품목에 대하여 재검토해주길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검토의견이 없었음

5) 2008- I 조사 : 항공요금 조사

- 검토의견
 - 재검토시 한국의 가격수정에 대한 이유
 - 처음 조사시 3개월 이상의 체류가격을 조사하였으나, 지침에 따라 2~5일 체류기간에 해당되는 1개월 항공요금 가격으로 수정하였음을 설명
 - 항공요금 가격조사의 어려움
 - 현재 지침은 6월에 10월 요금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미국 등 일부에서 10월에 조사된 가격을 보고하고 있어 다음 라운드에 조사기간을 심층 검토
 - 국가별로 세금 포함여부, 왕복 또는 편도요금인지 등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별도의 설문양식을 요청하니 작성하여 주길 원함

5. 2008라운드 조사완결 관련 토의

- OECD 담당자는 2008라운드 조사가격에 대해 금번 회의 시 토의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후 최종 수정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각 나라에 요청(제출일자는 추후 이메일로 통보할 계획임)

- 가격자료의 종결 및 시간계획표
 - 보건 및 가구 : 6. 15일까지
 - 집세 : 7. 30일까지
 - 피용자보수 : 8. 30일까지

6. 2011라운드 조사준비

- 참가국의 2011라운드 추진계획
 - OECD의 2011라운드 시간계획표에 따라 가능한 한 제출 기한에 늦지 않게 가격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

- 2011라운드 조사일정
 - 2009년 하반기에 2011라운드 첫 조사인 식료품 부문 조사가 실시될 예정
 - * 붙임 2011라운드 시간계획표 참조

7. 기타 안건

- 다음 회의 일정 및 장소 결정
 - PPP 회의는 보통 1년 6개월 주기로 개최되는데 지난 2007. 3월 동경회의 이후 작년 9월에 회의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연기되었음을 설명

- OECD 담당자가 다음 회의를 2011년 3월 이후가 어떠한지 의견 조회
- 참석자 대부분은 2011년 3월 이후이면 2011라운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0년 하반기에 회의를 하는 것이 2011라운드 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의견 개진
- OECD 담당자는 다음 회의를 2010년 9월에 파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함

IV. 회의 참가소감

- 동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각 국가경제 규모를 비교하는데 활용되는 PPP의 중요성과 비유럽국가의 PPP 업무에 대한 가격조사 사례 등을 공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
- PPP 업무는 보통 각 국의 물가 담당자가 물가업무와 함께 담당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PPP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, 우리나라의 경우는 담당이 수시로 바뀌어 업무의 전문성 및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음
- 특히, PPP 가격조사는 매 라운드마다 1년에 2개 조사씩 3년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매 조사마다 대부분 신규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전 라운드 조사시 문제점 및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인 매뉴얼 작성이 필요함을 인식

[붙 임]

1. 회의 참석자 명단

| 국가(기구) | 성 명 | 소 속 기 관 | 직 위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 국 | 이 은 정 | 통계청 물가통계과 | |
| OECD | Paul Schreyer | Statistics Directorate National Accounts Division PPP section | 과장 |
| | Francette Koechlin | " | |
| Eurostat | Lars Svennebye | Eurostat | |
| 미 국 | David Mead |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Price Program | Senior Economist |
| | James Thomas |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Price Program | |
| 일 본 | Toshiro Kumagai | 총무성 통계국 통계기준부 국제통계과 | 사무관 |
| | Ishihara Hideo | 총무성 통계국 통계조사부 물가통계실 | 사무관 |
| 캐나다 | Marc Prud' Homme | Statistics Canada, Industry Measures and Analysis Division | Senior Economist (Manager) |
| | James Malcom Temple | Statistics Canada, Income and Expenditure Accounts Division | |
| 호 주 | Susan Kluth |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, Prices Research & development | |
| | Laurie Nitschke |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, Prices Research & development | |
| 뉴질랜드 | Daniel Griffiths | Statistics New Zealand | |
| 이스라엘 | Merav Oven | Central Bureau of Statistics, Consumer Prices Sector | Director |
| 러시아 | Vasily Kuznetsov |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, GDP Comparison Division | Head |

2. 2011 라운드 시간계획표

| 년도 | 분기 | OECD에서 요청 | OECD에 제출 |
|------|-----|---|---|
| 2009 | 1/4 |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08년 4/4분기) |
| | 2/4 | ◦ 식료품(2009-I), 5월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09년 1/4분기) |
| | 3/4 |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09년 2/4분기) |
| | 4/4 | ◦ 개인용품(2009-II), 11월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09년 3/4분기) ◦ 식료품(2009-I) |
| 2010 | 1/4 |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09년 4/4분기) |
| | 2/4 | ◦ 가정용품(2010-I), 5월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10년 1/4분기) ◦ 개인용품(2009-II) |
| | 3/4 |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10년 2/4분기) |
| | 4/4 | ◦ 교통·외식·숙박(2010-II), 11월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10년 3/4분기) ◦ 가정용품(2010-I) |
| 2011 | 1/4 |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10년 4/4분기) |
| | 2/4 | ◦ 서비스(2011-I), 5월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11년 1/4분기) ◦ 교통·외식·숙박(2010-II) |
| | 3/4 | ◦ 장비 ◦ 건설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11년 2/4분기) |
| | 4/4 | ◦ 피용자보수 2011 ◦ 집세 ◦ 가구·보건(2011-II), 11월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11년 3/4분기) ◦ 서비스(2011-I, Services) |
| 2012 | 1/4 | ◦ 지출가중치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11년 4/4분기) ◦ 장비 ◦ 건설 |
| | 2/4 | | ◦ CPI 품목별 지수(2012년 1/4분기) ◦ 피용자보수 2011 ◦ 집세 ◦ 가구·보건(2011-II), 4월 |
| | 3/4 | | ◦ 지출가중치 |
| | 4/4 | | |

[별첨자료]

- 문서 1 : PPP와 활용(Purchasing Power Parities and their uses)
- 문서 2 : 교육 PPP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(A new approach to education PPPs in the Eurostat/OECD exercise)
- 문서 3 : 식료품 및 음료, 담배(Food, drinks and tobacco: 2006- I)
- 문서 4 : 개인용품(Personal appearance: 2006-II)
- 문서 5 : 가정용품(House and garden: 2007- I)
- 문서 6 : 교통 · 외식 · 숙박(Services: 2007-II)